

IFA 2024



삼성전자 전시관 입구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전시 주제인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전시관 입구 'AI 홈 게이트(AI Home Gate)' /LG전자

'스마트싱스' AI 기술혁신

SAMSUNG

'모두를 위한 AI' 주제... 새로운 일상 제시
보이스 ID·엠비언트 센싱 기능 등 공개

삼성전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통해 진화한 일상과 변화할 미래를 선보인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빅스비 기능을 통해 다양한 명령어를 말해도 가전제품이 한번에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 테슬라와 협업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차량 에너지 서비스도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참가해 AI 기술 혁신을 통해 진화한 연결 경험을 유럽 시장에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메세 베를린(Messe Berlin)' 전시장에 위치한 '시티 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 업계 최대 규모인 6017㎡(약 1820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영상디스플레이▲생활가전▲모바일 등 최신 AI 제품을 대거 전시

한다. 전시장 입구 초대형 스크린에서는 스마트싱스의 지난 10년간의 발전사와 AI를 통해 변화될 일상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먼저 초연결 시대에 필수 요소인 '보안'을 테마로 한 전시존에서는 기기 간 안전한 연결을 지원하는 '삼성 녹스 매트릭스'와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삼성 녹스 볼트'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외부인의 임의 접촉을 감지한 경우 즉시 차단해 스마트싱스의 보안 수준을 높여주는 '리셋 보호(Reset Protection)' 기술도 선보인다.

또한 태양광을 통해 생성된 전력량과 잔여 에너지량, 전기차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전력 소비량을 최적화해 주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도 테슬라와 협업하여 전시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제품에 적용된 음성 비서 '빅스비'를 자연어 기반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목소리나 위치를 인식해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 ID', '엠비언트 센싱' 기능도 공개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AI홈 허브 '씽큐 온' 공개

LG전자

'공감지능' 테마 차세대 가전제품 전시
AI 홈 통한 라이프스타일 체험공간 구성

LG전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가전으로 업그레이드된 미래 모습을 구현한다. 사용자의 홈 트레이닝부터 택시 호출까지 돕는 데 이어 아동 케어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AI 홈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는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공감지능'을 테마로 한 차세대 가전 제품을 전시한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AI홈 허브인 'LG 씽큐 온'(LG ThinQ ON)을 처음 공개한다. 씽큐 온은 집안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해주는 AI홈 핵심 기기다. 사용자가 친구와 대화하듯 씽큐 온과 소통하기만 해도 대화의 맥락이나 주변 환경을 파악해 가전과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한다.

이번 IFA 2024에서 LG전자는 관람객들이 직접 AI홈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성했다. 부스 초입을 AI홈 이미지

를 연출하는 약 30m 길이의 미디어아트로 장식했다. 이 공간을 지나면 AI홈을 활용한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AI홈 솔루션의 근간이 되는 'AI 코어테크(핵심 기술력)'도 선보인다.

AI 코어테크는 모터·컴프레서 등 LG전자의 뛰어난 하드웨어 기술력에 AI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AI로 제품 사용 환경을 분석해 최적화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끌어올린다.

LG전자는 IFA 2024에서 AI로 에너지 효율 높여 지속가능한 미래 만드는 '친환경 AI홈 솔루션'도 제시한다.

LG전자의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은 AI가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 냉난방 모드를 최적화해 에너지를 아낀다. 낮·밤, 날씨 등 환경에 따라 최적의 효율로 제품을 구동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관리한다.

LG전자 류재철 H&A사업본부장(사장)은 "생성형 AI로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LG AI홈' 솔루션을 앞세워 고객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AI홈 시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韓 해상풍력 개발 지지부진... 국제협력 강화해야" 제네시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출시

효성중공업 한·중 해상풍력 세미나
국내외 54개 기관 관계자 120명 참석
규제 완화, 中 협력 등 활성화 방안 제시

탄소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떠오르고 있다. 다만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외국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활발한 반면 한국은 인프라 부족과 규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5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의 풍력터빈 제조사 상해전기풍력, 독일의 시험인증기관 티유브이 슈드와 함께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 2차 한·중 해상풍력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효성중공업 고우식 박사는 한국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고 박사는 "한국은 반도지형 특성상 삼면이 바다이기에 해양 면적이 풍부하나 수심이 깊은 지역들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수심은 알지

만 해저 점토층이 두꺼운 해저 지반이 있기에, 실제 해저 지반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해상풍력 개발 초기에는 풍속이 높고 수심이 낮은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경기 인척 지역을 넘어 울산까지 확대돼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해상 풍력 개발 과정이 복잡한 점도 지적됐다. 한국에서의 해상 프로젝트는 크게 타당성 분석, 발전사업 허가, 개별 인허가, 개발 허가, 건설 총 5가지로 나뉜다. 해상풍력 개발 과정의 복잡성과 변동성은 단순히 개발 기간의 장기화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착공 시점이 불확실해지고 이로 인해 풍력터빈의 사양 선정, 해상에서 하부 구조물과 풍력 터빈 설치를 위한 운송 및 설치,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선박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개발 허가 기간 단축 등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국제 협력 파트너로서 해상풍력 개발 경험이 풍부한 중국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해상풍력구조 설치 실적은 37.8GW(기가와트)로 세계 누적 설치 용량 전체의 50%에 달한다. 고 박사는 "중국은 한국처럼 저풍속이면서 태풍 영향을 받는 지역 내 풍력터빈 설치 경험이 많다"며 "서해와 같이 해저 점토층이 두꺼운 해저 지반 조건에서 설치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은 한국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이만섭 효성중공업 사장, 양원(Yang Jun) 상해전기풍력 해외영업 본부장, 요하네스 부스만(Dr. Johannes Bussmann) 티유브이 슈드 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국내외 54개 기관의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만섭 효성중공업 사장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매우 기쁘다"며 "한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미래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상품성 개선... 1회 충전으로 475km 주행

제네시스 브랜드(제네시스)의 럭셔리 대형 전동화 세단이 독자적인 상품성과 함께 돌아왔다.

제네시스는 5일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이하 G80 전동화 모델)'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G80 전동화 모델은 브랜드 디자인 철학 '역동적인 우아함' 아래 정교한 디테일을 추가해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또 부분변경이지만 차체를 플래그십 수준으로 확대해 보다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췄다.

G80 전동화 모델은 기존 대비 용량이 7.3kWh 증대된 94.5kWh 고전압 배터리 탑재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475km로 개선됐다.

주행 성능은 ▲능동형 후륜 조향 ▲쇼퍼 모드 ▲신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등을 새롭게 적용해 승차감 및 조종 안전성과 주행 감성을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27인치 통합형 디스플레이 ▲동승석 메모리 시트 ▲뒷좌석 VIP 시트 등 차량 탑승객 모두를 위한 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위)외관 (아래)실내 /제네시스

재로운 고급 사양을 적용해 플래그십에 걸맞은 상품성을 확보했다.

제네시스는 신차 수준의 상품성 강화에도 G80 전동화 모델의 판매 가격의 인상폭을 최소화해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했다. G80 전동화 모델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8919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